

기도

1.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번제물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 각을 뜨고 벗겨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2. 예수님의 피를 통해 회개하여 얻은 죄사함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신앙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사장은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다. 그리고 타고 남은 재는 진영 밖에 버려야 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의복과, 재를 가지고 진영 밖에 버릴 때 입는 의복은 달라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후 진영 밖에 나갈 때 제사장들은 옷을 갈아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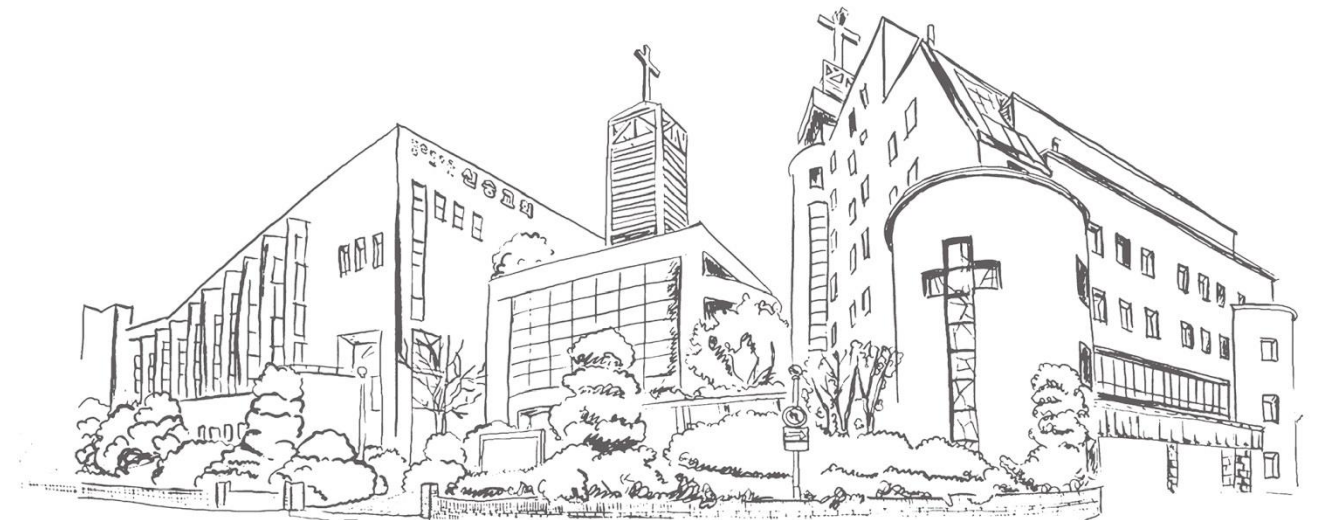


구역 공과

2022년 8월 7일

번제물을 드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번제물을 드리라

레위기 1장 3-9절 (찬27장, 32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통한 영적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4-9절).

번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항상 하루에 두 번씩,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첫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4절). 번제물을 드릴 때에는, 자신이 직접 짐승을 끌고 와야 합니다. 자신이 끌고 온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소가 대신해서 죽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 제사드리는 사람의 죄 값을 치루고, 죄를 속죄함 받게 됩니다.

둘째, 소를 잡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6절).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직접 소를 죽인 다음, 가죽을 벗겨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부위와 마디를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각을 뜨면서, 죄가 잔인하고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소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5절).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창9:5).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을 죄 값으로 치루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피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음 받고, 죄를 속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합니다(8-9절). 뜯은 각과 머리, 기름은 바로 불 위에 올려 태우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은 후에 불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의 내장에는 소화가 덜 된 음식물과 배설물이 있고, 땅에 닿는 정강이는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물로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으로 사신 흠 없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처럼, 많은 환란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면 다 씻어 주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통해 우리 죄가 완전히 씻음 받게 되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흠 없는 제물이 됩니다.

둘째,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죽어야 제물로 올려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성전에 나올 때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듯이 외부의 것을 내려놓고, 각을 뜨듯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의와 주장, 고집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죽어져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마다 항상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성막에 가서 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함 없이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 속죄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러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흠이 없는 거룩한 번제물로 날마다 드러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